

「무진기행」에 나타난 미메시스적 탐색

김혜영*

|| 차례 ||

- I. 들어가며
- II. 자기 상실과 미메시스
- III. 미메시스적 소통의 방식: 지각
- IV. 죽음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 무진
- V. 나가며

【국문초록】

이 논문은 「무진기행」에서 윤희중이 특정 대상과 친밀성을 회복해 나가는 모습이 미메시스적 태도와 유사하다고 보고, 윤희중의 여정을 미메시스적 탐색이라는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미메시스적 탐색의 핵심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 주체가 대상을 일방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상의 우위를 인정하는 수동적 태도에 있다. 「무진기행」에서 대상에 대한 수동적 태도는 지각에 의한 소통 방식으로 구체화되며,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대상의 질적 풍부함을 복원할 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향유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윤희중이 수동적 태도를 보이는 특정 대상들이 모두 죽음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윤희중의 무진행이 죽음을 탐색하는 여행임을 살펴보았다. 「무진기행」에서 미메시스적 탐색은 반복적으로 죽음 이미지를 표상하는 대상을 찾고, 죽음을 동화, 공감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탐색이 무진에서 가능한 이유를 무진이 의미나 가치가 확정되지 못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무진기행」에서의 미메시스적 탐색은 윤희중의 일상에 새로운 길을 내지 못한 채 무진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의 향유에 머물고 마는 한계를 갖는다.

*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조선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주제어: 미메시스적 탐색, 지각, 수동성, 자기 상실, 죽음, 향유

I. 들어가며

김승옥의 「무진기행」은 1960년대 도시와 시골의 관계를 조명하면서도 한국 근대문학에 새로운 감수성을 제공해 주었다는 의의를 갖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제목이 ‘무진기행’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공 윤희중이 자신의 고향인 무진에 도착한 다음 다시 무진을 떠나기까지의 여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의 시작과 끝부분에 ‘무진 10km’, ‘당신은 무진을 떠나고 있습니다’라는 팻말을 배치하여 무진이라는 공간의 경계를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는 점, 안개, 자기 상실, 반수면, 햇볕 등과 같이 무진의 공간적 특성을 암시하는 상징이 빈번히 제시된다는 점은 무진의 공간적 의미나 윤희중의 무진행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 일이 이 소설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을 말해 준다. 이 소설에 대한 연구 역시 이러한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무진은 서울과의 대비에 의해, 시골, 꿈, 감성, 여성, 환상 등의 속성을 가진 공간으로 분석되고 있으며,¹⁾ 이러한

1) 김현,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 『현대 한국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 문학과지성사, 1991/ 한상규, 「환멸의 낭만주의」, 『196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3; 최혜실, 「현실성과 환상성」, 『한국현대소설의 이론』, 국학자료원, 1994; 유종호, 「감수성의 혁명」, 『비순수의 선언』, 민음사, 1995; 장정진, 「「무진기행」을 위하여, 혹은 무의식의 여행을 위하여」, 『작가세계』 제8집, 1996, pp.388-399; 진정석, 「글쓰기의 영도-김승옥론」, 『문학동네』 1996, 여름/ 김보유, 「김승옥소설의 글쓰기 연구」, 서울대석사논문, 1999; 우정권,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현실 초월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1, pp.208-223; 정과리, 「유희, 그리고 공포」, 『김승옥 문학선』, 나남출판사, 2003/ 황국명, 「여로형 소설의 지형학적 논리 연구-「무진기행」을 중심으로」, 『문창어문논집』 제37집, 문창어문학회, 2000,

접근은 도시의 팽창과 함께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1960년대 시대상을 조명해 줌과 함께 합리성이나 책임 있는 사회적 관계 이면의 인간 욕망, 충동의 세계를 공간의 상징성과 연결해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무진이 서울에 비해 시골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학교, 세무서, 신문지국이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여름이면 반드시 몇 명씩 죽는 술집 여자가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농촌이나 어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농촌 시찰 관계자인 듯 보이는 두 사람이 무진에 대해 나눈 대화는 시사적이다. 이들은 무진이 항구로 발전하기에는 수심이 얕고 농촌으로 보기에는 평야가 없는 곳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무진은 ‘농촌도 아니고, 어촌도 아닌’ 공간인 셈이다. 이러한 규정은 하인숙이 무진을 “책임도 무책임도 없는 곳”으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측면을 지닌다. 무진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무진의 공간적 의미가 ‘~도 아니고 ~도 아닌’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곧 무진이 특정한 규정을 넘어선, 규정 불가능한 공간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윤희중의 무진행의 의미를 윤희중의 꿈이나 환상, 욕망 충족으로 보는 논의에서는 무진이 ‘긴장 이완’의 공간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무진에 도착한 윤희중이 서울에서의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모습과는 달리, “내가 긴장을 풀어버릴 수 있는, 풀어버릴 수밖에 없는 곳”으로 무진을 제시하면

pp.277-300; 신형철, 「여성을 여행하(지 않)는 문학-「무진기행」의 정신분석적 읽기」,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0집, 한국근대문학학회, 2004, pp.199-238; 광상순, 「김승옥의 「무진기행」 연구-‘무진’과 ‘하인숙’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44집, 국제어문학회, 2008, pp.255-280; 이은애, 「「무진기행」의 정신분석적 독해-‘사랑’이라는 인간의 운명적 ‘증상」,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1집, 한국현대문학학회, 2010, pp.337-380; 류보선, 「탈향의 정치경제학과 미완의 귀향들」, 『현대소설연구』, 제61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pp.93-135.

서 반수면의 수동성을 드러내는 부분은 ‘긴장 이완’이 윤희중의 무진행을 설명하는 중요한 특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친구 조나 후배 박, 신문사 직원 등에 대한 윤희중의 태도는 매우 객관적이면서 냉소적이라는 점에서 무진에서 벌어지는 윤희중의 일상 모두를 긴장 이완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윤희중은 무진에 오면 긴장을 풀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윤희중의 긴장 이완은 특정 대상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장 이완을 꿈이나 환상, 욕망 충족과 연결시킬 때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하인숙이다. 하인숙은 윤희중에게 서울에서는 불가능한, 일탈된 행동을 유발시키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무진기행」에서 하인숙이라는 존재가 차지하는 비중을 간과할 수 없으나 하인숙과의 만남에서도 윤희중은 하인숙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과거 추억을 회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는 하인숙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 무진 혹은 무진‘기행’의 전체적인 의미를 해석해내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 연구에서는 왜 윤희중이 특정 대상-6월의 바람에 반수면 상태에 빠지거나 하인숙과 쉽게 사랑에 빠지는 등-에 대해서 감응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그러한 태도의 변화가 무진에서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무진의 의미, 윤희중의 무진행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려고 한다.

윤희중은 현재의 상황과 같은 비중으로 자기를 상실했던 과거 기억에 머물러 있으며²⁾, 현재의 상황에서도 안개, 바람과 같은 자연적 대상이 주

2) 윤희중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에 대해 송기섭은 무진은 이미 일어난 것과 현재 일어나는 것으로 짜여져 있는 사건들의 장소라고 바라본다. 이처럼 무진에서 윤희중의 과거와 현재의 상호작용은 무진의 의미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송기섭, 「무진의 형상들과 안개 이미지-「무진기행」론」, 『국어국문학』 제177집, 국어국문학회, 2016, pp.307-335.

는 반수면에 빠져있거나 죽음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여성의 계열-미친 여자, 술집 여자, 하인숙-에 관심을 갖고 있다. 무진에 도착하자마자 두드러지게 변화하는 윤희중의 태도는 그 스스로가 언급하고 있듯이 서울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이러한 윤희중의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명하기 위해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윤희중은 무진에만 오면 긴장을 풀 수밖에 없고, 자기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자기 상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밝혀져야 한다. 서울에서의 실패로 인한 귀향에서 느끼게 되는 자기 상실과는 달리 제약회사 전무 승진을 앞두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무진에 내려온 윤희중이 우려하는 자기 상실의 의미를 규명할 때, 무진으로의 기행이 갖는 진정한 의미가 드러날 수 있다.

둘째, 윤희중이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긴장이 이완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윤희중은 무진의 바람, 안개, 별 등과 같은 자연적 대상에 감응할 뿐 아니라 미친 여성이나 술집 여성, 하인숙에 대해서도 동질성을 느끼는데, 이처럼 특정 대상에 대해 공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무진이라는 공간의 성격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 무진의 규정불가능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함께 윤희중이 무진에 와서 대상에 감응하는 수동적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 이러한 규정불가능함이라는 속성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탐색할 때, 자기 상실-대상에 대한 감응-규정불가능성을 잇는 무진행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윤희중이 무진에서 만나는 특정 대상과의 관계에서 능동성을 상실하고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 주목, 이처럼 대상에 수동적이면서 대상에 동화, 감응하는 태도를 미메시스

적 태도로 보고 윤희중의 무진행을 미메시스적 탐색으로 분석해 보려고 한다. 미메시스란 대상과의 관계에서 대상의 우위를 인정하면서 주체가 대상에 대해 수동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벤야민이나 아도르노는 인류가 합리성이 증시되는 근대사회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배제된 능력이 대상과의 친화성을 기본으로 전제하는 미메시스적 능력이라고 본다. 그리고 자연적 대상은 물론 주체의 내면까지 통제하는 이성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 대상과 주체, 주체와 주체 내면 사이의 소통적 관계를 위해서는 주체의 감각을 통해 대상이 지닌 질적 다양성과 풍요로움이 만나는 미메시스적 능력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진에서 윤희중이 보이는 태도 변화를 미메시스 개념을 매개로 분석할 때 무진의 자연이나 여성들에 대해서만 수동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를 보이는 윤희중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이나 여성에 대한 향유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왜 규정 불가능성을 그 속성으로 하는 무진인가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 자기 상실과 미메시스

「무진기행」에서 자기 상실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제약회사 전무 승진을 앞두고 고향에 내려가 쉬고 오라는 아내의 말에 윤희중이 무진에서는 항상 자신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떠올리는 부분이다. 이후 윤희중이 무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말과 윤희중 자신의 기억을 통해 그가 우려했던 자기 상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그는 6.25 전쟁 때 징병을 피해 골방에서 숨어지낸 일이 있었다는 것, 자랑스럽게 국가를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친구들과는 달리 홀어머니 때문에 굴욕감을 감내하는 시

간이 있었음이 제시된다. 그리고 폐병을 치료하기 위해 바닷가 외딴집에서 방을 얻어 지낸 일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친구들과 단절되어 쓸쓸한 시간을 보냈으며, 마지막으로 직장파 사랑하던 연인을 잃고 무진으로 돌아와 상실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진다. 이러한 실패와 상실의 시간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주체의 기능 상실과 맞물려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윤희중이 말하는 자기 상실의 의미는 사회적 자기를 상실했던 과거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³⁾

그런데 윤희중이 떠올린 자기 상실의 내포가 이처럼 서울에서의 실패에 국한될 것이라면, 무진에서는 항상 자신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보다는 자기를 상실한 상태에서 무진을 찾았다고 표현해야 더 정확하지 않을까. “무진에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찌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들이 나의 밖에서 제멋대로 이루어진 뒤 나의 머릿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듯”하다는 표현이나 “내가 긴장을 풀어버릴 수 있는, 아니 풀 수밖에 없는 곳”이 무진이라는 언급, 그리고 6월의 바람 때문에 반수면 상태가 빠지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수동적인 모습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반수면 상태는 의식적인 측면에서의 자기의 상실을 의미하고, 윤희중 안으로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밀고 들어온다는 상황이나 긴장을 풀 수밖에 없는 것 역시 주체적이고 통제적인 자기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수동적인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자기의 상실 상태로 설명 가능하다.

곧 「무진기행」에서 윤희중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자기 상실을 이야기하

3) 사회적 관계와 단절된 채 무진에 칩거해 있는 동안, 그는 더러운 옷차림, 누런 얼굴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골방 안에서 빈둥거리고 있으며, 그때마다 시간의 대열이 멎하니 자신을 비웃으며 흘러가고, 잠들어 있을 때는 악몽이 자신을 채찍질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무진에 칩거해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서울이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지향을 버릴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고 있는 셈이다. 하나는 서울에서의 실패에서 유발되는 자기 상실로 군대, 직장, 결혼 등과 같은 사회적 관문에 진입하는 것이 좌절되었을 때 겪게 되는 상실이고, 다른 하나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기의 역할을 포기하고 객체인 대상의 능동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대상의 우위성을 수용하는 방식의 자기 상실이다. 전자의 경우, 인간이 사회화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경험인 반면 후자의 합리적 자기 상실은 그 실체가 모호하다. 사회적 자기의 상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합리적 자기 상실의 경우, 사회적인 자기 상실과 중첩되게 배치하여 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자기의 상실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자기 상실의 긴장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과 관련을 맺을 뿐만 아니라 매혹, 향유, 두려움 등의 느낌, 정서 및 신체적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월의 바람으로 인해 반수면 상태에 빠지는 윤희중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윤희중은 조용히 잠들고 싶은 자신의 갈망을 유월의 바람을 통해 충족한다. 뿐만 아니라 윤희중은 안개에 대해서도 두려움과 매혹 속에서 꼼짝할 수 없는 힘을 느낀다. 이러한 자연적 대상 외에 하인숙의 목소리에도 윤희중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집에 데려다 달라는 하인숙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윤희중은 하인숙이 자신의 생애 속으로 갑자기 끼어든 당혹감과 함께 하인숙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것처럼 자신 역시 하인숙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인숙에게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로 전환되었음을 느낀다.

이처럼 특정 대상과의 만남에서 정서적, 신체적 변화를 겪는 윤희중의 모습은 일방적으로 대상을 규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있다. 중요한 것은 윤희중이 특정 대상에 대해 기꺼이 수동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수동적 상태에서 특정 대상

을 지각하는 윤희중에게 대상에 대한 매혹, 향유가 수반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매혹이나 향유의 정서적, 신체적 반응이 수동성을 이끄는 동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혹이나 향유의 정서적, 신체적 반응은 한 편으로는 대상의 풍부함을 향유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체성의 자리에서 벗어나 대상 속에서 일체감, 친밀성, 충만감을 회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대상의 우위성을 인정하고, 대상의 침투를 수용하면서 대상에 동화, 공감을 추구하는 이러한 태도를 이 논문에서는 미메시스적 태도로 보고자 한다.

미메시스란 다른 대상의 모양이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그 대상과 유사해지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인류가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자연적인 조건에 어떻게 적응하며 살 것인가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인간이 자연의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자연적 대상과 유사해지는 방식, 미메시스적 태도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진화론적 차원에서도 미메시스는 인류를 포함한 생명체의 중요한 존재 방식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미메시스에 대한 접근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나 리콰르처럼 미메시스를 인간이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켜온 창의적인 동력으로 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벤야민이나 아도르노와 같이 인류가 역사적으로 진보해 왔고, 그 진보를 추동하는 힘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점에 의문을 갖고 이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을 미메시스에서 찾는 경우이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후자의 견해이다.

벤야민은 「유사성론」, 「미메시스 능력에 관하여」에서 미메시스를 유사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본다. 특히 벤야민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징후를 읽어내는 능력에 주목, 이를 비감각적 유사성 읽기라고 부른다.⁴⁾ 점성가들이 하늘에서 별들의 위치를 읽는

동시에 별들의 상태에서 미래나 운명을 읽듯이, 동물의 내장, 춤, 우연한 사건들에서 ‘꺼져지지 않은 것’을 읽어내는 활동이 비감각적 유사성 읽기이다. 이러한 비감각적 유사성 읽기를 통해 우리는 사물의 정수, 지극히 민속하고 섬세한 실체들, 사물들의 독특한 향들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 벤야민의 경우, 미메시스 능력은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을 읽어내는 비감각적 유사성 읽기에서 가능하며, 이러한 투시적 읽기를 통해 대상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과의 진정한 상호작용 속에 도달할 수 있으며 대상의 질적 풍부함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도르노는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류의 진보를 계몽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계몽은 존재자 사이의 다양한 유사성을 추방하고, 그 자리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와 의미 없는 대상, 합리적인 의미와 우연한 의미 담지자라는 주객 관계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경향은 자연을 가상과 본질, 영향과 힘으로 이원화시켜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현상과 맞닿아 있다.⁵⁾ 하지만 자연은 경험계를 초월하는 것, 사물의 이미 알려진 속성 외에 사물 속에 있는 ‘그 이상의 무엇’을 가지고 있다.⁶⁾ 이처럼 사물 속에 있는 동일화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차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차이에 대한 고려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미메시스이다. 아도르노는 미메시스를 타자애의 유기적 순응⁷⁾이라고 정의한다. 아도르노는 미메시스적 태도가 갖는 대상에 대한 수

4) 벤야민의 미메시스에 관한 논의는 「유사성론」과 「미메시스 능력에 대하여」를 참고하였음(W. 벤야민(최성만 역), 「유사성론」, 「미메시스 능력에 대하여」,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관하여/번역자의 과제 외』, 길, 2008).

5) 아도르노의 미메시스에 대한 논의는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공저인 『계몽의 변증법』을 참고하였음(M.호르크하이머/Th.W. 아도르노(김유동 외 역), 『계몽의 변증법』, 문예출판사, 1995, pp.23-40).

6) M.호르크하이머/Th.W. 아도르노(김유동 외 역), 앞의 책, p.40.

7) M.호르크하이머/Th.W. 아도르노(김유동 외 역), 위의 책, p.245.

동성, 대상과의 직접적 접촉이 대상의 타자성, 대상에게 있는 대상 이상의 것을 감지하게 하여 대상과의 친밀성을 회복하게 함으로써 인간이 대상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메시스 능력은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퇴화된 인간의 능력인 셈이고, 그런 점에서 미메시스 능력에는 근본적으로 과거로 되돌아가기, 과거를 반복하려는 충동이 내재해 있다. 벤야민과 아도르노 모두 서구 계몽의 역사에서 소외된 능력을 복원하고, 이성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모색에서 미메시스적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벤야민이 주목하는 미메시스적 능력은 대상과 유사해지려는 행동에서 시작하여 표면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대상의 징후까지 읽어내는 비지각적 유사성으로 나아간다면, 아도르노의 경우 대상에 대한 순응을 통해 대상 이상의 것을 감지해 내는 능력에 초점을 둔다. 주객이 분리 상태에서 비로되이는 고립과 소외에서 벗어나 대상과의 친밀성을 회복하고 대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틀로 대상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의 우위를 인정하고, 대상의 침투를 수용하면서 있는 그대로 대상을 지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미메시스적 주체는 합리성으로 대상을 재단하거나 통제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대상과의 친밀성 속에서 대상에 마음을 열고, 대상을 받아들여려는 태도를 지닌 주체라고 하겠다.

윤희중이 무진에 들어서자마자 “무진에 오기만 하면 내가 하는 생각이란 항상 그렇게 엉뚱한 공상들이었고, 뒤죽박죽이었던 것이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았던 엉뚱한 생각을, 나는 무진에서는 아무 부끄럼 없이, 거침없이 해내곤 했었던 것”이라고 말하는 모습은 대상의 우위를 인정하고, 수동성을 유지하는 미메시스적 태도에 해당하며, 무진에서 윤희중이 미메시스적 탐색을 시작하는 여행자임을 보여준다. 윤희중이 무진에서 보여주는 미메시스적 탐색의 모습은 대상에 대한 수동적 입장에서 출발하여,

대상과 유사하게 동화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윤희중은 무진의 자연적 조건이나 무진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감응, 공감하면서, 이러한 대상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정서나 신체를 기꺼이 변화시킨다. 이러한 미메시스적 탐색은 대상과의 유사하게 됨으로써 대상과의 소외된 관계를 회복하고, 대상을 기존의 개념적 규정을 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명명함으로써 대상의 본질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대상의 질적 차원을 드러내는 작업은 대상이 가진 다양성, 통합할 수 없는 이질성의 공존에 주목하기 때문에 대상의 다층적인 측면, 어느 하나로 개념화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대상에 대한 동화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자연과 여성으로 나누어 고찰한 다음, 4장에서는 특정 대상에 대한 공감, 감응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Ⅲ. 미메시스적 소통의 방식: 지각

무진에서 윤희중이 보여준 미메시스적 탐색의 대상은 주로 자연이거나 여성들이다. 그렇다면 윤희중은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미메시스적 탐색을 수행할까. 이들 대상과 윤희중의 만남에서 특징적인 점은 이들 대상에 대한 윤희중의 반응이다. 윤희중은 무진의 자연적 조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⁸⁾ 무진의 명산물은 안개라고 주장하며, 유월의 바람에 반응하면 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개구리 소리에 별을 떨어리는 감각의

8) 김승옥 소설의 감수성 측면에 주목한 김명석은 김승옥 소설에서 주인공의 세계인식을 미적 구도와 색채, 질감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두드러지는데, 여기에는 현실을 감각적으로 수용하는 김승옥의 감수성이 작용한다고 본다(김명석, 『김승옥 소설의 감수성의 글쓰기』, 『우리문학연구』 제14집, 우리문학연구학회, 2001, p.259).

착란을 경험하기도 하고, 별 사이의 거리 때문에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한다.⁹⁾ 이러한 무진의 자연 가운데 윤희중이 비중 있게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안개와 바람이다.

윤희중에게 무진의 안개는 군대 혹은 여귀처럼 무진을 감싸고 있는 것으로,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바람, 해를 간절히 부르게 하는 존재로 지각된다. 이러한 지각의 근간에는 안개로 인해 신체적으로 꼼짝할 수 없음에서 비롯되는 두려움, 매혹, 절박함, 간절함의 정서적 반응이 깔려 있다. 이처럼 「무진기행」에서 지각은 특정 대상에 대해 수동적 자세를 취하는 윤희중이 그 대상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각이란 감각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으로서, 대상에 대한 지각 작용에는 대상을 감각적으로 포착하는 행위와 함께 그러한 지각 과정에서 지각의 주체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포함된다. 지각적 소통이 대상의 실재에 보다 가깝게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¹⁰⁾ 대상에 동화되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질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각에 의한 소통이 일상적 소통에서는 포착할 수 없는 대상의 다양한 속성을 읽어낼 수 있다는

9) 박선부는 김승옥 소설을 모더니즘적 관점에서 고찰하면서 김승옥 작품의 이미지가 지닌 영상적 미학에 주목한다. 주제나 스토리와 직접 무관한 의미의 불연속성 속에서 후각, 청각, 시각, 촉각 등 몽타주적인 공감각으로 정서의 영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한다(박선부, 「모더니즘과 김승옥문학의 위상-김승옥작품으로 본 모더니즘의 형이상학, 공간성, 그리고 그 영상성-」, 『비교문학』, 제7집, 한국비교문학회, 1982, pp.179-180).

10) 이러한 지각 언어의 모습은 벤야민이 말하는 이름 없는 것들을 이름 속에 수용하는 행위, 사물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를 번역하는 행위와 같은 층위라고 볼 수 있다. 벤야민은 사물들의 언어는 불완전하고 말이 없으며, 순수한 언어적 형식원칙인 음성이 없다고 표현한다(W. 벤야민(최성만 역),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관하여/번역자의 과제 외』, 길, 2008, pp.81-86).

점에서 벤야민의 ‘비감각적 유사성 읽기’나 아도르노의 ‘대상 너머의 것 읽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을 지각 대상으로 삼는 경향은 유월의 바람을 감각적으로 만나는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윤희중에게 바람은 “무수히 작은 입자(粒子)로 되어 있고 그 입자들은 할 수 있는 한 욕심껏 수면제를 품고 있는 것처럼 내게는 생각되었다. 그 바람 속에는 신선한 햇살과 아직 사람들의 땀에 벤 살갓을 스쳐보지 않았다는 천진스러운 저온(低溫), 그리고 지금 버스가 달리고 있는 길을 에워싸며 버스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산줄기의 저편에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금기, 그런 것들이 이상스레 한데 어울리면서 녹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윤희중은 시각, 촉각, 후각 등의 감각을 사용하여 바람에서 ‘신선한 햇살’, ‘천진스러운 저온’, ‘소금기’를 감지하기 때문에 윤희중이 지각한 바람은 ‘시원한’, ‘산뜻한’, ‘상쾌한’ 등의 수식어가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의 폭을 넘어선다. 이러한 바람에 대한 지각은 윤희중을 반수면 상태라는 신체적 변화를 유발시키는 동인이 된다. 대상의 표면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을 지각해내는 투시적 지각 방식은 대상과 소통하고, 대상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는 미메시스적 태도의 핵심을 이룬다.

이처럼 대상의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것, 대상 너머의 것, 대상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지각하는 모습은 하인숙의 노래를 읽어내는 윤희중의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하인숙의 노래에서 노래를 넘어선 ‘어떤 것’을 지각해 내는 윤희중의 모습은 지각이 작동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그 여자가 부르는 ‘목포의 눈물’에는 작부(酌婦)들이 부르는 그것에서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꺾임이 없었고, 대체로 유행가를 살려 주는 목소리의 갈라짐이 없었고 흔히 유행가가 내용으로 하는 청송맞음이 없었다. 그

여자의 ‘목포의 눈물’은 이미 유행가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나비부인’ 중의 아리아는 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새로운 양식의 노래였다. 그 양식은 유행가가 내용으로 하는 청승맞음과는 다른, 좀더 무자비한 청승맞음을 포함하고 있었고 ‘어떤 갠 날’의 그 절규보다도 훨씬 높은 옥타브의 절규를 포함하고 있었고, 그 양식에는 머리를 풀어헤친 광녀(狂女)의 냉소가 스며 있었고 무엇보다도 시체가 썩어 가는 듯한 무진의 그 냄새가 스며 있었다.(165)

윤희중이 하인숙의 노래에서 지각해내는 것은 노래의 내용, 노래가 공유되는 전체적인 분위기 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하인숙의 부르는 ‘목포의 눈물’은 친구 조와 그의 동료들에게는 술자리의 여흥을 돋우는 노래일 뿐이며, 후배 박에게는 후배 박은 성악을 불리야 할 목청에서 유행가가 나오는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와는 달리 윤희중에게 하인숙의 노래는 유행가도 아니고, 아리아도 아닌 새로운 양식으로 지각된다. 곧 윤희중은 하인숙의 노래가 기존의 인식틀로는 해독할 수 없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기존 틀로 설명할 수 없는 하인숙의 노래를 해독하기 위해 윤희중이 작동시키는 지각의 방식은 보다 더하거나 덜하다는 감각과 관련된 ‘강도적인 것’과 시각, 후각 등의 감각이다. 하인숙의 노래는 유행가보다 ‘좀 더 무자비하게’ 청승맞고, 아리아의 절규보다 ‘훨씬 더 높은’ 옥타브의 절규를 포함하고 있는 강도로 포착되며, 하인숙의 노래에서 윤희중은 광녀의 냉소를 ‘보고’ 시체 썩어가는 무진의 냄새를 ‘맡는다’. 윤희중에게 하인숙의 노래는 죽음과 광기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지각된다.

윤희중이 하인숙의 노래에서 포착해내는 죽음과 광기 이미지는 무진에 도착하기 전 광주역에서 만난 미친 여성의 모습과 다음날 어머니 묘지에 다녀오면서 보게 된 술집 여성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윤희

중이 이들 여성들이 과거 자신과 같은 처지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공감한다는 점이다. 광주역에서 만난 미친 여성의 비명은 과거 홀어머니 때문에 징용을 피해 골방에서 숨어지냈을 때의 ‘미칠 것 같았던 느낌’을 획 끌어 온다. 구두담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비명을 지르는 그녀의 상황에 윤희중은 동화된다. 그리고 술집 여성의 시신에서 윤희중은 “아프기는 하지만 아끼지 않으면 안 될 내 몸의 일부”임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지난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여자의 죽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윤희중이 여성과의 만남에서 겪는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변화는 하인숙과의 만남에서 보다 생생하게 포착된다. 윤희중은 하인숙의 떨리는 목소리나 하인숙과의 신체적 접촉에서 하인숙과 친해진 느낌을 받고, 하인숙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윤희중과 하인숙 사이에 형성된 친밀감은 이후 하인숙과의 대화에서 하인숙의 심정에 공감하는 모습으로 심화된다. 하인숙이 친구 조의 집에 놀러 오는 이유를 ‘심심해서’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윤희중은 “심심하다. 그래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동의하며, 가끔 그렇게 잠이 오지 않는다는 하인숙의 말에는 “그냥 그렇게 잠이 오지 않는다, 아미 그건 사실이리라.”고 받아들인다. 윤희중은 하인숙과의 대화에서 하인숙의 말을 그대로 다시 받으며, 그 말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윤희중이 하인숙의 ‘심심하다’나 ‘잠이 오지 않는다’는 표현에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표현 속에 담긴 하인숙의 정서적, 신체적 상황을 읽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인숙의 말을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던 윤희중도 하인숙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지는 못한다. 윤희중은 그 이유를 ‘사랑한다’는 “국어의 어색함”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윤희중이 느끼는 “국어의 어색함”이란 자신이 하인숙에게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의 층위와 ‘사랑한다’는 언어 사이의 간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처럼 언어가 지각을 타자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한 인식은 윤희중이 바닷가 외딴 집에서 폐병을 치료하면서 친구들에게 보낸 엽서에서도 제시된다.

윤희중은 “아침의 백사장을 거니는 산보에서 느끼는 시간의 지루함과 낮잠에서 깨어나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이마를 손바닥으로 닦으며 느끼는 허전함과 깊은 밤에 악몽으로부터 깨어나서 쿵쿵 소리를 내며 급하게 뛰고 있는 심장을 한 손으로 누르며 밤마다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의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굴뚝대기처럼 다다다다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는 나의 생활”을 ‘쓸쓸하다’라고밖에는 표현하지 못하는 언어적 소통의 한계를 절감한다. 이와 같이 중층적이고 색깔이 다른 지각을 전달하기 위해, 통용 가능한 단어인 ‘쓸쓸하다’를 선택하는 모습을 통해 지각을 있는 그대로 타자에게 전달하기 어렵고, 지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소통 가능한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지각을 표현한 언어(지각 언어)를 타자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대상의 지각에는 자신의 내면, 욕망, 충동이 개입되기 때문에, 사회적 의사소통의 규범이나 통제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각 언어는 전달 불가능한 언어지만 대상의 질적 다양성을 포착하고 대상에 동화, 공감하는 향유를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윤희중의 미메시스적 태도는 지각을 통해 대상과 만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지각을 통해 대상과 만나는 과정에서 주체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겪게 된다. 자연적 대상에 동화되어 두려움이나 매혹, 반수면과 같은 동화의 상태에 처하게 되거나 여성들의 처지에 공감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일부로 느끼고, 사랑에 빠지는 정서적 상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동화나 공감의 상태는 대상과의 소외를 극복하고 충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곧 미메시스적 태도는 체계, 법칙, 책임의 틀 속에서

움직이는 현대사회에서 억압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비판하고, 억압된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가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미메시스적 태도에 해당하는 지각은 대상과의 정서적, 신체적 반응 속에서 대상을 포착함으로써 대상의 질적 풍부함을 드러내고 대상과의 친밀성을 회복하지만, 그러한 지각의 풍부함을 전달 가능한 언어로 번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기 향유에 국한된다는 한계를 갖는다.

IV. 죽음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 무진

그렇다면 무진에서 윤희중이 동화되고 공감하는 대상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윤희중이 미메시스적 태도를 보이는 대상들, 수동적 상태에서 지각을 중심으로 포착해낸 자연과 여성들 사이에는 어떠한 유사성이 있는 것일까. 이러한 대상에 대한 동화와 공감이 자기 향유의 방식이라면 윤희중은 이들 대상의 어떤 모습을 향유하는 것일까. 이를 위해 무진에서 만나는 세 여성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다음, 이러한 특정 대상에 대한 공감이 무진의 자연적 조건인 바람이나 안개와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윤희중은 미친 여성, 술집 여성, 하인숙에 대해 과거 자신의 모습과 닮거나 자신의 몸의 일부,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자신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한다. 윤희중이 미친 여성을 보고 과거 골방에서 숨어지낼 때의 모습을 떠올리는 장면을 보면, 윤희중이 말하는 과거 자신의 모습이란 서울에서의 실패로 무진에서 실의의 시간을 보낸 과거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세 여성 역시 이미 미쳐 있거나 죽은 상태거나, 미칠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로부터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고 본다면 이들 여성의 모습이 윤희중의 과거 모습과 유사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 여성이 과거 윤희중의 모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의 상태를 윤희중과 같은 실의의 상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실의의 상태에서 한 걸음 더 극단적으로 나아간, 자신의 정신이나 신체를 포기한 상태를 보여준다. 광주역에서 만난 미친 여자는 구두담이 아이들에 의하면, “공부를 많이 해서”, “남자한테서 채여서” 미친 상태이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 그녀가 겪어야 했던 실의의 상황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독해서 죽을 것 같지 않았던 술집 여성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다. 이들의 선택이 생명체가 가진 자기 보존의 한계점을 넘어서었다는 점에서 이들을 윤희중의 과거 모습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특히 윤희중이 실의의 상태를 극복 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킨 데 비해 이들의 실의는 극복하지 못했거나, 극복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술집 여성은 독하게 생활해 왔음에서 불구하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죽음을 선택했으며 무진을 떠나고 싶어하던 하인숙 역시 자발적으로 무진에 남기를 선택한다. 이러한 점에서 실의를 이들 세 여성의 공통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친 여성, 죽은 여성, 그리고 하인숙의 노래 속에 담긴 광기와 죽음 이미지를 고려할 때, 이들 세 여성을 묶을 수 있는 단서는 광기와 죽음이다. 죽음 이미지 속에 광기를 포함시켜 논의한다면 윤희중이 이들 세 여성에게 발견하는 것은 죽음 이미지라고 하겠다. 무진에서 보낸 실의의 시간이 사회적 자기 상실과 관련되었다면, 수동적인 상태에서 대상에 동화, 공감하는 윤희중에게서 합리적인 자기 상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수동적인 자기의 상태를 끝까지 밀고 나간 자기 절멸 지점이 죽음 이미지라는

점은 윤희중의 무진 기행을 합리적 자기 상실을 통해 존재 무화의 상태를 향유하는 탐색의 과정으로 보게 한다.

윤희중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 이미지는 유월 바람에 반수면 상태가 되는 윤희중의 모습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반수면 상태에 빠진 윤희중은 유월의 바람을 가지고 수면체를 만들어 팔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누구나 조용히 잠들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는 말 속에는, 조용히 잠들고 싶어하는 윤희중 자신의 욕망을 표현되어 있다. 조용히 잠들고 싶다는 마음 속에는 일차적으로는 현실의 소란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있겠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의식의 정지 상태에 대한 갈망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중에 술집 여성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이 만들고 싶어하던 수면체는 이미 무진에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잠들고 싶은 욕망이 곧 죽음 충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진의 안개 역시 죽음 이미지를 환기시킨다. 무진(霧津)의 한자적 의미가 ‘안개 나무’일 뿐만 아니라 윤희중이 무진에 도착하면서부터 무진의 날씨는 계속 흐리거나 비가 온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안개는 무진의 공간적 속성을 암시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무진의 공간적 특징과 관련하여, 첫째, 안개는 외부로부터 무진을 격리, 단절시키는 장치가 된다. 외부로부터 격리는 무진을 작동시키는 원리가 외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를 서울로 볼 때 무진은 서울과는 다른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둘째, 안개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뚜렷하게 존재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부재이면서 동시에 존재하는 안개의 속성은 무진을 확정 불가능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이러한 속성은 농사 관계 시찰원이나 하인숙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무진을 ‘농촌도 아니고 어촌도 아닌’, ‘책임도 없고 무책임도 없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불가능성은 무진을 규범, 책임, 나아가 의미마저도 확정될 수 없는 공간으로, 합리성이나 책임감이 지배하는 서울과는 대비적인 속성을 지닌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이러한 공간은 인류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의 이분법적 규범 체계를 명확히 하기 이전의 세계, 인간이 가진 욕망이 크게 제한받지 않던 시대의 모습에 맞닿아 있고, 이러한 무진의 공간적 특성이 윤희중에게 미메시스적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¹¹⁾

이러한 규정불가능의 공간인 무진에서는 의미가 확정되거나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이면서 ~이면서 ~인’ 사유가 가능해진다. 존재이면서 부재인 안개의 속성은 이러한 모순을 허용하는 조건이 된다. 윤희중은 옛날의 애인이었던 희를 사랑했고 그녀를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의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인숙을 사랑한다. 하인숙은 서울에 가고 싶으면서, 서울에 가고 싶지 않다.¹²⁾ 이러한 접속은 이것(들)이 아니면 저것(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선택의 일반적 조건에서 벗어나 있다. 이러한 접속의 자유가 가능한 곳이 무진이기 때문에 무진에서 윤희중의 탐색 역시 이러한 접속의 한 형태로 볼

11) 신형철은 무진의 규정불가능한 속성에 주목하면서도 하인숙이 무진에서 만나는 세 여성에 초점을 맞춰 무진을 여성적인 공간으로 바라본다. 그에 의하면 무진은 안개로 표상되는 전언어적 향유를 구현하는 여자의 공간이면서 모성적 조차아의 형상으로 무진의 배후를 감싸고 있는 어머니의 공간이다. 전자를 무한한 향유를 약속하며 후자는 그 향유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무진에 대한 윤희중의 불명확한 태도가 비롯된다고 본다(신형철, 「여성을 여행하(지 않)는 문학-「무진기행」의 정신분석적 읽기」,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0집, 한국근대문학회, 2004, p.213).

12) 하인숙의 이러한 선택에 대해 김복순은 ‘의식의 자기 충족적 방식’, 곧 자기 무화를 경험한 하인숙이 주체로부터 분리된 대상의 효과를 감지하고 자기 충족적 방식에 의거하여 서울로 진입해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중심이 되는 스스로의 향유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김복순, 「남성/여성 만보의 담론화 방식과 감각적 인식-「무진기행」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3집, 2005, p.292).

수 있다. 죽음의 이미지를 가진 여성들과의 접촉, 비밀들을 가진 사물들과의 접촉을 이어나가면서 ‘그리고’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미메시스적 탐색이 갖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손으로 잡을 수 없으나 뚜렷이 존재하는 안개의 속성은 부재하면서 존재하는 것. 죽음 충동을 상징하기도 한다. 윤희중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만 서울에서는 드러내 보일 수 없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윤희중 내부의 타자, 죽음 충동이라고 한다면, 윤희중은 무진에서 그 죽음 충동의 외현을 세 여성들에게서 확인한 셈이다. 죽음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에 매혹되고 공감하며, 동일시하는 모습에는 책임이나 규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에 대한 지향, 유용성이나 의미를 추구하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벗어나 영원히 정지를 꿈꾸는 태도가 담겨 있다. 그런 점에서 윤희중의 무진 기행은 죽음 충동을 반복하는 기행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을 소멸, 해체시키고, 정지의 상태에 가까이 감으로써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이 죽음 이미지의 반복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충동을 반복적으로 실현시키는 과정이 소설에서 구현하는 미메시스적 탐색의 실체이다.

무진은 이분법적 척도로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시스템의 억압구조를 붕괴시키는 공간에 해당한다. 근대적 공간이 자연과 문명, 신체와 정신, 죽음과 삶을 분리시켜 자연이나 신체, 죽음의 목소리를 억압하면서, 그러한 배제 속에서 자기 동일성을 추구해 왔다면, 무진은 그러한 억압된 목소리가 발화되고, 소통되면서 자기 동일성이 해체되는 공간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공간에서 윤희중은 사물의 비밀스러운 속삭임을 읽어내고, 사물이 주는 힘에 도취되면서 죽음 충동을 실현해 나간다. 무진이 이러한 욕망의 힘, 사물의 힘에 매혹되고 도취되는 공간이라면, 서울은 “바란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게 하는 선택이 작동하는 공간이다. 자신이 욕망이나 바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삶의 안정, 출세 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욕망의 추구가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사회가 용인하는 안정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

V. 나가며

이 연구는 김승옥 소설 「무진기행」에서 윤희중의 무진‘기행’이 윤희중이 수동적 상태에서 무진에서 만나는 특정 대상과 친밀성을 회복해 나가는 여정이라는 점에 주목, 이러한 여정이 미메시스적 탐색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미메시스란 대상에 대한 모방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모방은 인류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자신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어 왔다. 미메시스적 태도가 대상을 대하는 주체의 일방적이고 규정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주체의 수동성을 통해 대상과 주체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근대의 합리주의 체제에서 소외되고 억압된 대상의 지위를 복원하여 주체와 대상의 화해로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바라보기도 한다. 「무진기행」의 윤희중이 무진에서 만나는 특정 대상에 대해 수동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윤희중의 여정이 자신을 수동적으로 만나는 특정 대상을 찾아 나서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이 소설에서 윤희중의 무진행을 미메시스적 탐색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이처럼 윤희중의 무진행이 갖는 의미를 미메시스적 탐색으로 분석함으로써, 다른 대상과는 달리 특정 자연적인 조건이나 여성들에게 공감하고, 동일시하는 윤희중의 태도가 갖는 의미를 밝혀 보았다.

「무진기행」에서 윤희중의 수동성은 긴장 이완, 반수면과 같이 합리적

자기를 상실하는 상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수동적 상태에서 작동되는 대상과의 소통 방식이 지각이다. 지각에 의한 소통은 대상이 갖고 있는 질적 다양성을 향유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벤야민의 ‘비감각적 유사성 읽기’나 아도르노가 말하는 ‘대상 너머의 것 읽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상에 대한 향유의 기반이 되는 지각 언어를 타자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 대상에 대한 향유가 주체와 대상이라는 폐쇄적인 회로를 통해 작동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윤희중이 수동적 태도를 보이는 특정 대상들이 모두 죽음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수동성을 극한까지 밀고 나갈 때 죽음과 맞닿게 된다. 윤희중에게 죽음 이미지는 현실로부터 단절, 의식이나 신체를 평안한 상태로 유지하고 싶은 충동으로 구체화되며, 그런 의미에서 「무진기행」은 삶의 논리에 의해 배제되거나 훼손된 죽음의 의미를 복원하여 죽음을 미메시스적 탐색의 대상으로 삼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죽음 충동, 자기 절멸에의 지향은 무진의 공간적 특성과 관련된 것이다. 이 소설에서 무진은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고 외부의 규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공간이다. 또한 무진은 규정할 수 없는 공간, 실체가 없는 공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무진에서 죽음을 향유하는 일이 가능한 것은 무진의 규정불가능함, 실체 없음과 관련된다. 윤희중은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무진이라는 공간에서 대상이 가진 죽음 이미지에 동화됨으로써 서울의 질서를 부정하고, 서울의 가치를 전복시키기를 꿈꾼다. 죽음이 인간의 원초적인 상태라고 말한다면, 무진은 그 원초적인 상태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퇴행의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다. 윤희중은 무진이라는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죽음과 유사한 이미지를 찾고 죽음을 향유하는 미메시스적 탐색을 하는 여행자인 셈이다. 그러나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를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향유가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함을 말해 준

다. 「무진기행」에서 윤희중의 미메시스적 탐색은 무진을 서울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한정할 뿐 아니라 무진을 떠나 서울로 귀경하는 방식으로 여정을 마무리함으로써 미메시스가 체제나 규범에 틈을 내고 합리성을 교란시키는 힘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곽상순, 「김승옥의 「무진기행」 연구-‘무진’과 ‘하인숙’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44집, 국제어문학회, 2008. pp.255-280.
- 김명석, 「김승옥 소설의 감수성의 글쓰기」, 『우리문학연구』 제14집, 우리문학연구학회, 2001. pp.245-266.
- 김보우, 「김승옥소설의 글쓰기 연구」, 서울대석사논문, 1999. pp.1-74.
- 김복순, 「남성/여성 만보의 담론화 방식과 감각적 인식- 「무진기행」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3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pp.273-310.
- 김현,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 『현대 한국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 문학과지성사, 1991.
- 박선부, 「모더니즘과 김승옥 문학의 위상-김승옥 작품으로 본 모더니즘의 형이상학, 공간성, 그리고 그 영상성-」, 『비교문학』, 제7집, 한국비교문학회, 1982. pp.161-187.
- 류보선, 「탈향의 정치경제학과 미완의 귀향들」, 『현대소설연구』, 제31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pp.93-135.
- 송기섭, 「무진의 형상들과 안개 이미지-「무진기행」론」, 『국어국문학』 제177집, 국어국문학회, 2016. pp.307-335.
- 신형철, 「여성을 여행하(지 않)는 문학-「무진기행」의 정신분석적 읽기」,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0집, 한국근대문학회, 2004. pp.199-238.
- 우정권,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현실 초월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1. pp.208-223.
- 이은애, 「「무진기행」의 정신분석적 독해-‘사랑’이라는 인간의 운명적 ‘증상」,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1집, 한국현대문학회, 2010. pp.337-380.
- 유종호, 「감수성의 혁명」, 『비순수의 선언』, 민음사, 1995.
- 장정진, 「「무진기행」을 위하여, 혹은 무의식의 여행을 위하여」, 『작가세계』 제8집, 1996. pp.388-399.
- 진정석, 「글쓰기의 영도-김승옥론」, 『문학동네』 1996. 여름. pp.1-13.
- 최혜실, 「현실성과 환상성」, 『한국현대소설의 이론』, 국학자료원, 1994.
- 한상규, 「환멸의 낭만주의」, 『196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3.
- 황국명, 「여로형 소설의 지형학적 논리 연구-「무진기행」을 중심으로」, 『문창어문논집』

제37집, 문창어문학회, 2000. pp.277-300.

벤야민, W.(최성만 역), 「유사성론」, 「미메시스 능력에 대하여」,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관하여/번역자의 과제 외』, 길, 2008.

호르크하이머, M./아도르노, Th.W.(김유동 외 역), 『계몽의 변증법』, 문예출판사, 1995.

Abstract

A Mimesis Research Appearing at 「Mujingiheng」

Kim, Hye-young

At this paper Yun Heejung's journey to Mujin regarded as a itinerary that he got back intimacy with a particular object from which he met Mujin at the passive condition, and thought that the itinerary to have a nature of mimesis research. The core of mimesis research is a passive attitude by which a subject recognizes the superiority of an object without unilateral determination. This paper confirmed that the passive attitude to an object was embodied by the communication style through perception, that the effect of recognition recovered the abundance of the quality of the object, and that, in the sensual recognition of the object, the enjoy of the object was carried out. Yun Heejung verified that the itinerary to Mujin is a travel to death through the fact that all of the particular objects showing passive attitude are linked with death image. The death that Yun Heejung consider is severance, recognition from the reality, or the impulsion to keep bodies comfortable. In the meaning, 「Mujingiheng」 is a novel as an object of death enjoyment by recovering the meaning of death excluded or damaged by the logic of life.

Key word: mimesis research, passive attitude, perception, self loss, death, enjoyment

김혜영

소속 :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전자우편 : hybkim@chosun.ac.kr

이 논문은 2019년 5월 09일 투고되어
2019년 6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6월 12일 게재 확정됨.